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역사·NGO 담당 기자 / 도쿄 특파원

발신 | 2015. 11. 13 민족문제연구소
담당: 자료실장 김승은 / 010-6734-5060 / shse17@hanmail.net
대외협력팀장 김영환 / 010-8402-1718 / yhkact@gmail.com
일본 연락처 / 090-9678-4130

제목 |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 발족 및 기념심포지엄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오는 11월 14일(토), 일본 도쿄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운동에 일본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이 운동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가 발족합니다.
3. 이 자리는 해방 70년을 맞이하고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의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귀 언론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심포지엄

- 때: 11월 14일(토)
- 곳: 일본 도쿄 미나토구 근로복지회관
- 프로그램
 - 일본측 대표인사
 -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인사 -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연대사 “한국과 일본을 잇는 힘”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전망 - 조세열(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 일본건립후원회 결성을 위해 - 경과보고, 회칙, 임원체제 등 제안
- 기념심포지엄 “전쟁·식민지 지배에 대해 배우다-‘식민지역사박물관’의 가능성”
 - 이케다 에리코(WAM,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관장)
 - 히구치 유이치(고려박물관 관장)
 -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첨부

- 한국측 발표문
- 일본후원회 참가요청문
- 행사안내문(일본어)